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네덜란드 올 연말 소포 배송수, 전년 대비 50% 증가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2019년 다보스포럼 의제, '세계화 4.0'
2. 중국 천진항, 터미널 최적화 위해 자동화 크레인 도입
3. 인도네시아, 동남아 전자상거래 성장 주도

명사 스피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경쟁력을 가진 핵심부분에 집중하고 비핵심 부분인 물류를 전문 물류기업에 외주를 주는 전략적인 물류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 하면 기업들의 만족도와 경쟁력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기봉 (㈜강동물류 대표이사
(2018. 12. 3. / 물류신문 인터뷰기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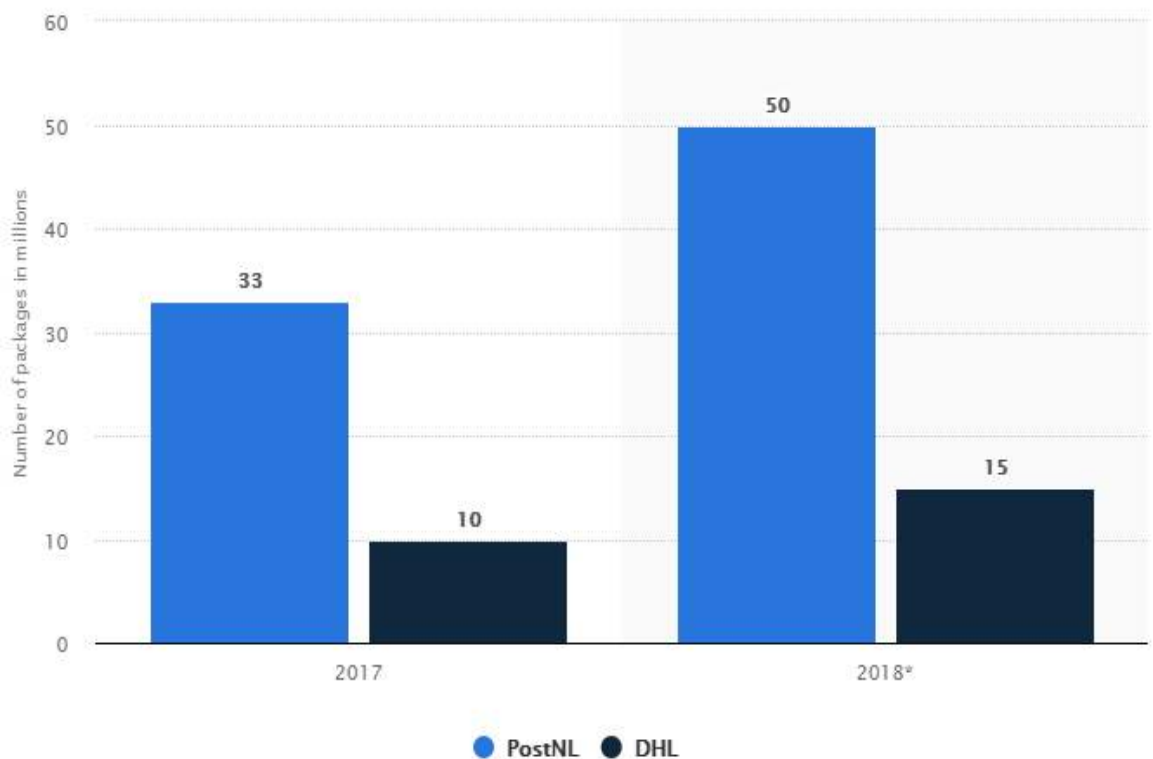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네덜란드 올 연말 소포 배송수, 전년 대비 50% 증가

- 네덜란드에서 올해 연말(11월 기준) 배달된 소포(package) 수는 약 6천 5백만 개로 2017년 약 4천 3백만 개 대비 50% 증가했음
 - 네덜란드 국제운송업체인 PostNL은 금년 연말(11월 기준)에 5천만 개의 패키지를 처리했으며 이는 2017년 3천 3백만 개 대비 51% 증가한 수준임
 - 2018년 미국 10대 물류기업에 속하는 DHL 또한 2017년 대비 금년 물량이 50% 증가한 1천5백만 개에 달했음
- 이는 e-commerce 산업 확대에 의한 국제운송 증가, 네덜란드에서의 블랙프라이데이 인지도 상승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PostNL, DHL 연말 운송량 (2017,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개)



자료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47052/number-of-packages-delivered-during-the-holiday-season-netherlands-by-company/>

참고자료 : <https://www.statista.com>, 2018.12.05.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2019년 다보스포럼 의제는 '세계화 4.0'

- 2019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이하 다보스포럼)의 의제로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이 선정될 것으로 보임
 - 다보스포럼에 따르면 현재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으며, 이는 전 세계 기업, 정부, 기업 간의 관계 또한 바꾸고 있음
 - '세계화 4.0'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9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4.0'의 전략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협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영향을 다룰 예정이라고 함
- 특히 다보스포럼에서는 2016년에 이어 한 번 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첨단 신기술이 얼마나 경제적·산업적으로 중요한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
 - 다보스포럼의 Global Dialogue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 경제 변화, 보건·에너지·통신·운송 분야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 예정임
 - Global Dialogue에서 추천 및 제안된 내용은 디지털 경제·사회, 경제발전, 에너지, 환경, 무역 등 다보스포럼의 14개의 시스템 과제(System Initiative)에 반영될 예정임
- 현재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4.0'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적·사업적·사회적·학문적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통해 대담한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기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보스포럼 2018 주요 참석자



사진 : WEF,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1/whos-coming-to-davos-2018/>, 2018.1.16.

■ 참고자료 : WEF,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9 Overview,
http://www3.weforum.org/docs/WEF_AM19_Meeting_Overview.pdf, 2018.12.03.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중국 천진항, 터미널 최적화 위해 자동화 크레인 도입

- 중국 천진항에 위치한 FICT(Five Continents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는 최근의 메가 시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스위스 자동화 전문기업 ABB사와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함
 - FICT는 이미 최대 용량으로 풀가동 중으로서 현재까지 기존의 수동 스택킹 크레인을 개량하는 방법 등으로 터미널을 운영해 왔음
 - 이번 업그레이드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ABB사는 크레인 배치를 재구성 및 자동화 했으며, 2019년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있음
 -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10위인 천진항은 중국 북부의 해상 게이트웨이로서, 배후에는 북경이 입지해 있으며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 등과 연결되는 해상 루트를 형성 중임
- 2005년 개장한 FICT는 연간 처리능력이 150만 TEU로 최근의 선박 대형화와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터미널 생산성 향상 과제를 안고 있어 ABB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FICT 총책임자인 Song Tianwei씨는 천진항 터미널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를 위해 야드 자동화가 절실하다는 자가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전 세계 약 900개의 스택킹 크레인을 자동화 한 실적을 보유한 ABB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기대함
- 앞으로 FICT 스택킹 크레인 파트에 ABB사의 자동화 및 원격 감시 솔루션이 적용되며, 기존의 크레인도 ABB사 설계 전기시스템으로 재정비됨
 - ABB사는 ZPMC(상해 진화 중공업)와 협력해 천진항 야드 현대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FICT에 적합한 자동 스택킹 크레인을 특별히 설계했음
 - ABB사 자동화 크레인의 생산성은 시간당 30회로 매우 안정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완료 시 FICT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컨테이너 터미널 야드 자동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중국 천진항



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utomated_cranes_to_optimize_tianjin_terminal#abb

■ 참고자료: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utomated_cranes_to_optimize_tianjin_terminal#abb, 2018.12.4.

한성일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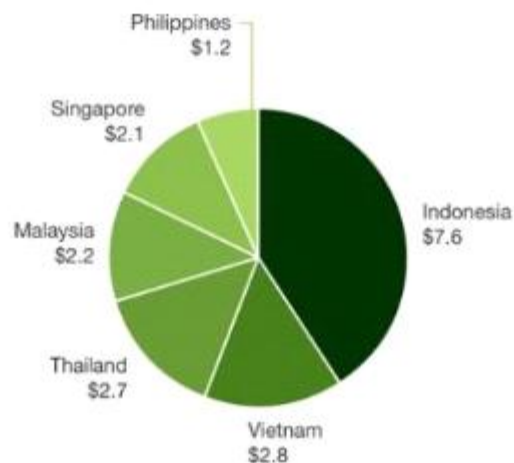
051-797-4781, han@kmi.re.kr

인도네시아, 동남아 전자상거래 성장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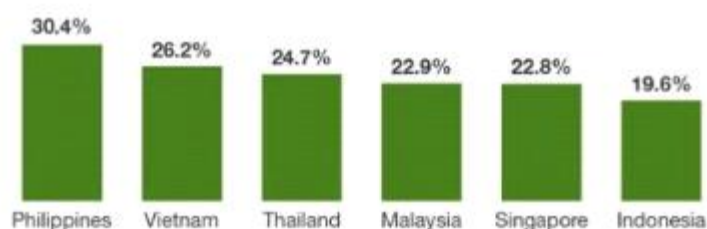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온라인 시장이 연평균 23% 성장해 2023년에는 53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190억 달러에 달함
 - 블랙 프라이데이와 싱글 데이와 같은 행사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놀라운 판매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됨
- 현재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온라인 소매 시장은 2018~2023년 사이 연평균 19.6% 성장해 2023년에는 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쇼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중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8 동남아시아 국가 온라인 시장 규모 및 2018~2023 성장률

Online retail sales 2018
(US\$ billion)



CAGR 2018 to 2023



자료 : <https://www.marketing-interactive.com>,



- 동남아시아 온라인 시장을 견인하게 될 품목은 전체 소비시장의 22.3%를 장악하고 있는 패션 및 화장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품목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보급률이 낮아 2018~2023년 사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동남아시아 시장은 알리바바, 바이두, JD.COM 등과 같은 중국 온라인 거대 기업의 새로운 경쟁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물류, 지불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80억 달러 이상에 달함

■ 참고자료 : <https://www.marketing-interactive.com>, 2018.12.5.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